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02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6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II.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580억 2천 8백만원으

로, 전년도 3,545억 9천 7백만원 대비 34억 3천 1백만원(0.97%)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330억 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209억 7천 7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이 16억 8천 3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22억 4천 5백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354,597	358,028	3,431	100.97
일반회계	353,070	354,099	1,028	100.29
세외수입	331,925	333,002	1,076	100.32
경상적세외수입	330,520	330,745	224	100.07
임시적세외수입	1,404	2,257	852	160.75
국고보조금 등	21,008	20,977	△30	99.8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6	118	△17	86.76
도시개발특별회계	1,527	3,929	2,402	257.30
국고보조금 등	654	1,683	1,029	257.34
국내차입금	873	2,245	1,372	257.16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DMC첨단산업센터 사용료, 그레벙 박물관 사용료, e스포츠 경기장 임대료 등을 비롯한 재산임대수입 95억 8천 8백만원과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0억 8천 7백만원 그리고 DMC 사업용지 매각에 따른 사업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3,189억 3천만원,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7억 7천 3백만원 등으로 모두 3,307억 7천 5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해 도 수입 등 모두 22억 5천 7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은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에 209억 7천 7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3백만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개선 등 기금 98억 9천4백만원 등 209억 7천7백만원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1천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6억 8천 3천 9백만원과 정부자금채 22억 4천5백만원 등 모두 39억 2천 9백만원임.

나.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878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810억 3천 4백만원에 비해 2.4%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666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9천 1백만원(4.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3천 1백만원(△95.4%)이 감액되었고 이 밖에 기본경비는 14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 4백만원(5.5%)이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81,034	287,883	6,849	2.4	
일반회계	소 계	259,432	268,137	8,705	3.4
	기본경비	1,338	1,412	74	5.5

	재무활동	2,475	114	△2,631	△95.4
	사업비	255,620	266,611	10,991	4.3
	도시개발특별회계	21,602	19,746	△1,856	△8.6

○ 세출 예산은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기존의 사업들이 일부 증액되고 서울창업허브 운영,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등 신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6,849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 분야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 …………… 1,292억 2천 7백만원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5억 5천 5백만원
- 서울형 R&D 지원 233억 9천 7백만원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188억 5천 5백만원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5억 9천 5백만원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46억 1천 2백만원 등임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 …… 233억 1천 9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140억원 3천 6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7억 8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5억원 5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8억 7천 2백만원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억원 등임

【 문화산업 육성 지원 】 …… 282억 7천 4백만원

-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56억 5천만원
-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42억 7천 4백만원
- 서울 e스타디움 운영 및 활성화 29억 8천 3백만원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29억 5천 5백만원
-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25억 4천 6백만원 등임

【 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410억 7천 3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 3천 3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운영 122억 3천 6백만원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80억 3천 7백만원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4억 5천 3백만원

- 아스피린센터(ASPRIN CENTER) 운영 14억 1천만원 등임

【 투자유치 활성화 】 … 46억 6천 5백만원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 2천 9백만원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0억 4천 3백만원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9억 9백만원

- 非OECD국가 학교 지원 8억 2천 4백만원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5억원 등임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 … 25억 5천 7백만원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6억 2천 4백만원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5억 9백만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억 5천 5백만원 등임

【 함께 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 … 100억 1천만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6억 1천 3백만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6억 4백만원

-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4억 6천 5백만원

-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 9억 8천 8백만원 등임

【 과학기술 진흥 】 … 21억 4천 9백만원

-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6억 1천 3백만원
-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5억 4천만원
-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2천 6백만원 등임

【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 … 27억 3천 1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6억 9천 5백만원
-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4억 7천 5백만원
- 농업전문인력 육성 2억 4백만원
- 강소농 육성 지원 2억원 등임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중소기업육성기금	111,528	127,397	233,732	△106,334	5,193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115억 2천 8백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 말 보다 1,063억 3천 4백만원이 감소된 51억 9천 3백만원임.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580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3,545억 9천 7백만원 대비 34억 3천 1백만원(0.97%)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3,330억 2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09억 7천 7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16억 8천 3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22억 4천 5백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회계 / 장 / 관 / 항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354,597	358,028	3,431	0.97
일반회계	353,070	354,099	1,028	0.29
세외수입	331,925	333,002	1,076	0.32
경상적세외수입	330,520	330,745	224	0.07
재산임대수입	9,297	9,588	291	3.13
사용료수입	937	1,345	407	43.49

	사업수입	320,076	319,803	△272	△0.009
	이자수입	9.6	7.7	△1.8	△19.66
	임시적세외수입	1,404	2,257	852	60.65
	과징금및과태료등	208	156	△52	△24.89
	기타수입	1,021	1,963	942	92.22
	지난연도수입	174	136	△37	△21.68
	보조금	21,008	20,977	△30	△0.14
	국고보조금	6,203	765	△5,437	△87.66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525	10,403	878	9.22
	기금	5,280	9,809	4,529	85.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	118	△17	△13.14
	보전수입등	136	118	△17	△13.14
	용자금 원금수입	136	118	△17	△13.14
	도시개발특별회계	1,527	3,929	2,402	157.31
	보조금	654	1,683	1,029	157.48
	국고보조금등	654	1,683	1,029	157.48
	지방채	873	2,245	1,372	157.18
	국내차입금	873	2,245	1,372	157.18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3,307억 4천 5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5억 8천 8백만원으로 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3억 4천 5백만원으로 4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3,198억 3백만원으로 2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 역시 7백 7십만원으로 1백 8십만원이 감액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0.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입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 수입,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것임.
- 이 밖에,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98억 9백만원,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9억 5백만 등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54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한 209억 7천 7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8천 3백만원과 정부 자금채 22억 4천 5백만원 등 총 2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 서울시의 2017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29조 6,524억으로 전년도 예산 27조 5,037억원에 비해 7.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6%, 8.3%가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현황>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계	29조 6,524억원	27조 5,037억원	2조 1,487억원(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3억원(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3억원	6,953억원(8.3%)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878억 8천 3백 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2,810억 3천 4백만원(추경 미반영)에 비해 2.4%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666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9천 1백만원 (4.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억 1천 4백만원으로 전 년도 대비 95.4% 감액되었고 이 밖에 기본경비는 14억 1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81,034	287,883	6,849	2.4	
일반회계	소 계	259,432	268,137	8,705	3.4
	기본경비	1,338	1,412	74	5.5
	재무활동	2,475	114	△2,361	△95.4
	사업비	255,620	266,611	10,991	4.3
도시개발특별회계	21,602	19,746	△1,856	△8.6	

- 전체적인 세출 예산은 홍콩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기존의 사업들이 일부 증액되고 서울창업허브 운영,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등 신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6,849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878억 8천 3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43개 사업에 190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5개 사업에 14억 1천 8백만원), 이는 경제진흥본부 전체 예산의 6.6%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17년 예산(안)
경제정책과	1.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720,000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00,000
	3. 서울시 기업119센터 설치운영	240,000
	4.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7-2026) 연구용역	86,300

	5.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166,000
	6. 발명특허 페스티벌(주민참여)	70,000
	7.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개최(주민참여)	50,000
산업거점조성반	8.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40,000
소상공인지원과	9.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10,000
문화융합경제과	10. 강서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60,000
	11. 면목마을공방 및 패션창업과정 운영(주민참여)	100,000
	12. 종량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170,000
	13. 영상자서전 제작지원(주민참여)	60,000
	14. 청년영상콘텐츠 제작지원(주민참여)	60,000
	15. 노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400,000
디지털창업과	16. 서울창업허브 운영	12,236,000
	17. 청년 창업공간 조성(주민참여)	530,000
	18. 도전속 활성화 지원(주민참여)	150,000
민생경제과	19.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49,700
도시농업과	20.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25,000
	21. ICT 융복합 도시농업 스마트팜 사업	100,000
	22. 농산물 마케팅 지원	103,000
	23.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1,200
	24.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00,000
	25.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주민참여)	100,000
	26. 심고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학교텃밭 조성(주민참여)	21,000
	27.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주민참여)	28,760
	28.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33,300
	29. 유희공간 확대 텃밭조성(주민참여)	5,000
	30. 농협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용역	20,000
	31.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700,000
서울시립과학관	32.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613,650
	33.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108,000
	34. 사이버전시관 운영 및 홈페이지 고도화	100,000
	35.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26,636
	36.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38,000
농업기술센터	37.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56,000
	38.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0,000
	39. 농업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100,000

	40.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2,000
	41.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20,000
	42.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32,400
	43.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7,400
소계	43개 사업	19,079,346,000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p.84>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30,000	5,595,000	5,3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720,000 ■ 시설비 2,800,000 ■ 시설부대비 75,000

- 본 사업은 R&D 집적지 조성과 양재 R&D지구 내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앵커시설을 구축하고 민·관 협치거버너스를 위하여 양재포럼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55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양재·우면 지역은 주변에 역량이 우수한 대·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하여 자생적인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산업간 융·복합 촉진이 용이하고 강남도심과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과 타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서울시는 양재·우면 지역의 기존 R&D 인프라를 확장하고 투자를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권자는 중소기업청이며, 신청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서초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양재 R&D 앵커시설의 조성지로 양곡도매시장(서초구 양재동 223 (32,095 m^2)) 부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앵커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7년에 실시할 예정임.

- 또한 17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타당성 연구용역 전에 지역의 거점 마련을 위하여 임시로 aT(한국농수산물공사)센터의 빌딩(6층~15층)을 임차하고 기업의 보육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할 예정임

- 서울시는 aT센터의 빌딩에 임시 앵커시설을 양곡시장의 개발이 끝나는 약 5년 동안 활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연간 임차비와 운영비가 21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임차비와 운영비가 100억 가량 소요될 것이라 예상됨.
 - 5년 이후 양곡시장부지로 앵커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예산(25억원)은 매몰비용이 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추가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음.

- 본 사업이 현행 규정상 투자심사 대상에서 임대차가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5년에 걸쳐 1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심도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09>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994,946	1,140,000	△854,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1,140,000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제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도에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신규가입하는 서울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
- 지원인원 : 3년간 연 35,000명 내외
- 지원규모 : 월 1만원 정액지원(최대 연간 12만원)
- 지원방식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 사업기간 : 2016년~2018년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인정, 복리이자의 적용, 압류 금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사업은 2016년 10말 기준으로 당초 예산액인 19억 9천 4백만원 중 예산집행액이 4억 6,111만원(집행률 23.1%)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사업추진 결과 연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가입자의 비율이

28%에 그치고 있어 예산 편성 당시의 서울시 추정이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16년 예산 산출 내역 : 257,745원(1인당 월 평균 가입액) × 30,000명(가입자수) × 12월 × 43%(연매출 2억 이하 가입자 추정치) × 5%(정률제)=1,994,946,000원

<2016년 월별 공제가입 및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규가입			가입자 누계	
	전 체	소상공인	서울시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전 체	소상공인
1월	2,689	2,570	-	192,290	175,696
2월	2,906	2,800	-	195,196	178,496
3월	4,301	4,161	1,438	199,497	182,657
4월	2,820	2,731	1,044	202,317	185,388
5월	4,437	4,308	1,438	206,754	189,696
6월	4,491	4,362	1,398	211,245	194,058
7월	4,378	4,224	1,389	215,623	198,282
8월	3,726	3,573	1,137	219,349	201,855
9월	3,517	3,404	1,206	222,866	205,259
10월 (10.20 기준)	2,662	2,562	694	225,528	207,821
합 계	35,927	34,695 (100%)	9,744 (28%)	225,528	207,821

- 또한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신규 가입을 촉진한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 바, 동 사업이 가입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선 공제 지원사업 신규가입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18,517	33,892	35,503	28,765	43,804	44,452
전년대비 증감인원	12,136	15,375	1,611	-6,738	15,039	648
전년대비 증감률	190.2	83.0	4.8	-19.0	52.3	1.4

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사업별설명서 p.233>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630,930	657,980	27,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1,140,000 ■ 사무관리비 12,750 ■ 민간위탁금 564,930 ■ 시설비 80,300 (타당성 조사용역비)

- 본 사업은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밀집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6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창조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가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과 창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신흥합 지역의 창업시설 현황>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	창업모텔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 4 길 77 ANT 빌딩 1층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창천동 13-90)
○ 규 모 : 건물 1일 일부(전면부) 223.77㎡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토지면적 167.9㎡, 연면적 348.6㎡
○ 사업기간 : 2016. 3. ~ 2018. 12.	○ 사업기간 : 2017. 6. ~ 2020. 5.
○ 사업내용 : 회의, 세미나 등 네트 워킹이 가능한 라운지 형태의 공 용공간 운영	○ 사업내용 : 초기 창업 기업가(예비 창업자)의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주거 및 창업지원공간 운영
○ 총사업비 : 324,930천원 (인건비 83,610 운영비 185,320 사업비 56,000)	○ 총사업비 : 240,000천원 (인건비 65,000 운영비 100,000 사업비 75,000)

- 창업시설 중 특히 창업모텔은 창업공간의 제공뿐 만 아니라 주거공
간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16년 4월 신촌 지역에 모텔 10
여개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지역을 조
성하라는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1개씩 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모텔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16년 7월)
일정규모의 부동산인 모텔의 매입비용이 투자심사의 대상인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8천 3백만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처음 창업모텔을 매입하여 아직 리모델링 중

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개의 모텔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음.

-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결과 못지않게 현 창업모델의 운영 성과가 차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가장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특히 향후 구매하는 모텔의 경우 현 창업모델과의 위치, 입지 경쟁력, 소유주의 매각의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바, 매입대상 모텔이 30억 미만인 경우 타당성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30만원이 불용될 여지도 있음.

- 거의 밀접한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입비용의 30억 초과 여부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투자심사 제도의 한계를 일면 볼 수 있음.

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2>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파트너스 하우스 운영	1,074,000	1,039,784	△34,216	■ 민간위탁금 1,039,784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수출 상담을 위하여 초청한 해외바이어가 숙박할 수 있는 객실과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0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산업진흥원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개요>

소재지	용산구 한남대로 138	
면적	지하2층/지상3층 (대지 : 3,012㎡ / 연면적: 2,966.55㎡)	
주요시설	객실 : 9개(스위트 3, 일반 6)	
	한강홀(100석), 세미나룸(20석), 테라스라운지(10석) 카페테리아(18석), 중앙정원, 옥상정원, 주방, 음향실 등	
개관일	2009.09.23	
 		

- 최근 5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객실가동률, 수출상담회 개최결과, 교육·세미나 개최 실적이 점차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빠져있음.

<최근 5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실적>

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객실	79.3%	79.5%	80.8%	52.8%	40.9%
회의장	79.0%	86.5%	84.2%	80.1%	75.3%
수출상담액 (천불)	97,850	98,540	38,117	56,490	19,435

- 산업진흥원은 파트너스하우스의 부진한 운영에 대하여 세계 경제성장률과 국내수출입의 감소로 해외바이어의 방문과 초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주변의 호텔들이 가격할인을 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상실을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해외에 발간되는 잡지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파트너스의 부진이 홍보만으로 개선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호텔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상쇄할만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마.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417〉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2,888,400	2,955,693	67,293	■ 민간위탁 2,955,693

- 서울시는 동대문 중소기업자와 신진디자이너를 위한 패션쇼룸을 구축하고 국내외 패션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패션 우수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5년부터 동대문쇼룸을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대문쇼룸 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2-1번지 DDP
- 규 모 : 이간수문 전시장 지하1층~지상1층(300평)

면 적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층	371.69m ²	115.96m ²	487.65m ²
지하1층	704,08m ²	248.57m ²	952.65m ²



<위치도>



<쇼룸 전경>

- 산업진흥원은 서울소재 패션부분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국내생산자를 대상으로 국내생산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및 그 외의 액세서리 등 패션 전품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입점기업을 선정하여 “차오름”이라는 브랜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주상담 등을 통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음.

<동대문쇼룸 운영 실적>

구 분	참가사업	참가기업	진행기간	수주상담액	매출액
쇼룸 입점	2016.F/W시즌 기획전시	98개사	2016.04.25.~05.31	80만 달러	-
	2017.S/S시즌 기획전시	111개사	2016.08.16.~11.30	262만 달러	37백만원
수주 상담회	리테일페어(국내)	20개사	2016.07.12.~07.14	20만 달러	-
	CHIC SHOW(해외)	29개사	2016.10.11.~10.13	920만 달러	300백만원
기타	나이트플리마켓	138개사	상시 운영중	5만 달러	61백만원
	합계	396개사		1,287만 달러	398백만 원

- 동대문쇼룸은 쇼룸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과 당초 예산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동대문쇼룸의 브랜드인 차오름이 아직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동대문 쇼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대문쇼룸의 브랜드 지향점을 고가, 중고가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가 동대문 쇼룸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대문 쇼룸은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상인들이 참여하고 동대문쇼룸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시장개척과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동대문 쇼룸은 입점대상자를 동대문 상인이 아닌 일반 디자이너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대문 상인의 지원과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라는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당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음.
 -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민간위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령 동대문 쇼룸의 사업 목적과 대상의 변경이 신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민간위탁 심사 당시의 사업계획을 사후에 변경·수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동대문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임대료가 비싼 현재 위치에 쇼룸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바. 주민참여예산

- 2017년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14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5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은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장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2개의 사업(영상자서전 제작지원, 청년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임.
 - 16년 주민참여사업부터 시의 핵심과제로 연계될 수 있는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17년 예산안	소관부서
	계(15개)		1,418,060	

1	발명특허 페스티벌(주민참여)	마포구	50,000	경제정책과
2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개최(주민참여)	금천구	40,000	경제정책과
3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용산구	10,000	소상공인지원과
4	강서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강서구	60,000	문화융합경제과
5	면목마을공방 및 패션창업과정 운영(주민참여)	종랑구	100,000	문화융합경제과
6	중랑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중랑구	170,000	문화융합경제과
7	영상자서전 제작지원(주민참여)	서울시	60,000	문화융합경제과
8	청년영상콘텐츠 제작지원(주민참여)	서울시	60,000	문화융합경제과
9	청년 창업공간 조성(주민참여)	중구	530,000	디지털창업과
10	도전숙 활성화 지원(주민참여)	성북구	150,000	디지털창업과
11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주민참여)	동대문구	100,000	도시농업과
12	심고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학교텃밭 조성(주민참여)	중랑구	21,000	도시농업과
13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주민참여)	노원구	28,760	도시농업과
14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노원구	33,300	도시농업과
15	유희공간 확대 텃밭조성(주민참여)	노원구	5,000	도시농업과

- 종전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 텃밭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음.
- ‘17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도시농업 관련 5개, 봉제교육, 창업공간 조성 등 취업·창업 관련 5개로 최근 취업과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상시 선정되는 분야의 사업 중에서도 ‘유희공간 확대 텃밭 조성’처럼 종전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차별성이 있는 사업도 있으며 영상자서전 제작지원, 청년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일부 사

업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유희공간 확대 텃밭 조성’은 종전의 텃밭 사업과 달리 수정재배를 통하여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고 실내텃밭을 친환경 인테리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들이 사실상 자치구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기가 어려움.

- ‘도전속 활성화’ 사업의 경우 성북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인 도전속의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 2¹⁾에서 참여예산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선정시에 심사기준에 반하는 사업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 그리고 창의성 등 가점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사. 서울시 기업 119 센터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180>

-
-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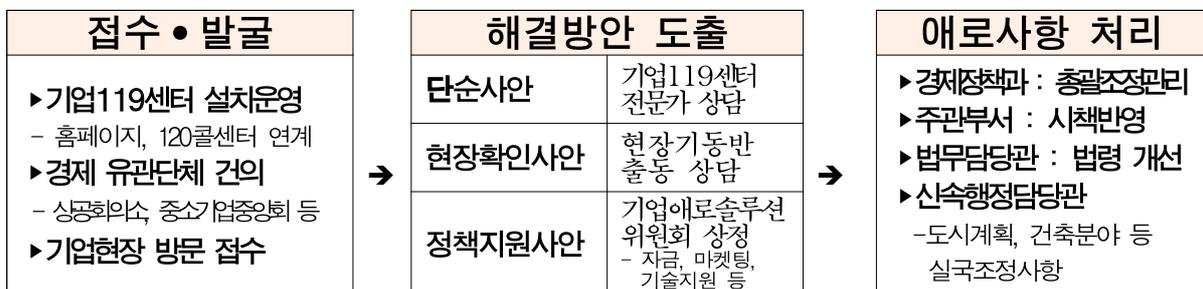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기업 119 센터 설치·운영	-	240,000	2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60,000 ■ 전산개발비 80,000

- 본 사업은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기업 119 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기업 119 센터는 자금, 입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서울소재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접수받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²⁾의 자문을 받고 복합 민원의 경우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³⁾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나 국회에 철폐 건의 등을 담당할 예정임.

<기업애로 발굴·해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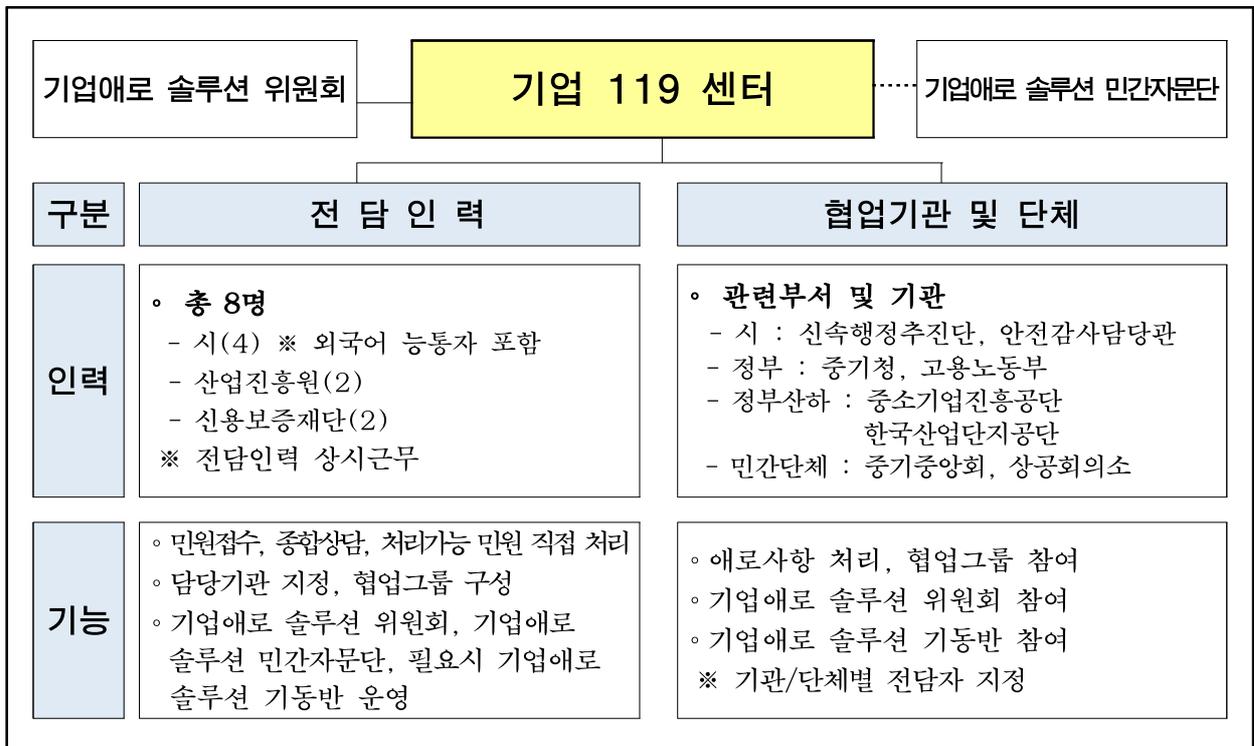


2)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풀이 구성되어 필요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음.

3)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는 경제진흥본부장과 중소기업청(서울청장), 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장), 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서울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 서울시는 16년 2월 서울시 기업 119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무교동 청사 3층에 기업 119 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진흥원(2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1명)부터 근무인력을 지원받는 등 '16년 7월 초에 센터 개관을 추진하고 있었음.

<기업 119 센터 구조도>



- 하지만 2016년 기업 119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기업협력팀을 별도로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119센터 매뉴얼 작성, 홈페이지 구축, 상주 상담인력의 배치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업 119센터의 개관이 2016년 12월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기업 119 센터를 현재 무교동 청사에서 2017년 4

월에 서울시 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로 이전할 계획인 바,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기업 119 센터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는 점과 복합민원의 경우 서울시의 여러 실·국을 비롯하여 중앙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교동 청사가 입지적으로는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함.

○ 또한 기업들의 민원이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민원 해소보다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감사원의 중소기업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업 119센터가 이들 기관과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아.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별설명서 p.615>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509,803	509,357	△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60,000 ■ 전산개발비 80,000 ■ 사무관리비 179,620 ■ 공공운영비 12,582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4,655

- 본 사업은 개인서비스요금과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및 감시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모니터링 운영, 물가모니터 관련 인건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은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에 대한 평가결과 가격기준이 총 40점 이상이고 위생·청결기준이 15점 이상이며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

- ① 가격 기준 (60점)
 - (가격 수준 : 25점)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25점)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 10점)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②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객실, 화장실, 건물 등 환경 위생·청결도(30점)
- ③ 서비스 기준 (5점)
 - 종사자의 친절도(5점)
- ④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점)
- ※ 가점 부여 기준 (10점)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2016년 서울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883개로 이중 외식업체가 621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2014년 이래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연도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2013	1001	693	308
2014	1019	722	297
2015	925	654	271
2016	883	621	262

- 특히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기준미달로 인한 지정취소보다 폐업, 자진취소, 휴업으로 인한 지정취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결과론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복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현황>

취소 사유	총계	기준미달 (가격기준)	기준미달 (위생기준)	기준미달 (평점총합)	폐업	자진취소	휴업	행정처분	프랜 차이즈	기타
'13년	206	13	8	15	127	21	3	4	3	12
'14년	112	19	3	1	65	8	4	1	4	7
'15년	187	28	12	18	80	2	5	22	9	11
'16년	91	15	-	2	56	9	3	4	-	2

- 이처럼 착한가격업소로의 장점이 희소해진다면 자영업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내역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151	193	295	237	309
희망물품지원 (~14년도까지 쓰레기봉투로 지원)	100	85	167	168	227
표찰 및 가격표지판	51	25	16	2	2
전기시설 안전점검	0	0	33	54	16
해충방제지원	0	83	79	13	64

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별설명서 p.58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414,700	1,043,300	△37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700 ■ 민간경상사업보조 1,040,600

- 본 사업은 해외 우수기업 유치 및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10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1인당 최고 100만원×최대 6개월)과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투자자 간 협상을 통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됨.
- 서울시의 최근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로 인한 지원실적으로는 솔베이사 글로벌본부 및 연구소, 지멘스(주)(구 지멘스에너지솔루션스)가 있었으며 솔베이사에 대한 현금지원액은 '11년에 국비 7억 9천 4백만원, 시비가 11억 9천만원으로 총 19억 8천 4백만원이었음.

<지멘스(주) 관련 현황>

- 본 사 : 獨 베를린 / 원헨
- 분 야 : 빌딩자동화, 산업자동화, 에너지, 헬스케어, 철도운송
- 규 모 : 매출액 97조원(75,636백만유로),
200여 개국 종업원 35만여명('15년)
- 한국법인 투자현황(설립일:2013.10.2.)

구 분	지멘스 에너지 솔루션즈
매출규모	1,330억원
종업원수	232명
사 무 소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12층
사업부문	- 한국 등 아태지역 및 중동 관할 지역본부 역할 - 발전소 설계, 시공, 감리, AS 솔루션

- 지멘스(주)에 관한 현금지원은 '13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지멘스 간 체결된 현금지원계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04억, 서울시가 104억을 지멘스의 투자이행, 투자집행이행, 고용이행 결과 중 가장 저조한 이행율을 기준으로 매년 현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음.

<글로벌기업 지원본부 유치지원금 사업 개요>

- 투자내용 : 지멘스(주)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
 - ▶ 한국,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중동지역 관할
- 투자분야 : 에너지 산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 ▶ 에너지분야(GT)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발전기의 터빈 설계, 제작, 설치
 - ▶ 약 연 4.5조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지멘스의 핵심 분야
- 투자금액 : 1,300억원(자기자본 100%)
- 현금지원한도 : 208억원(서울시 분담 50% : 104억원)
- 지급방법 : 투자이행, 투자집행이행, 고용이행에 따라 연도별 분할지급(2020년까지)

- 하지만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지멘스의 이행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14년에는 집행률이 57.2%(33억 6천만원 중 19억 2천 4백만원 집행), '16년에는 집행예상률이 39.3%(10억 4천만원 중 4억 9백만원 집행)임.

<지멘스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투자계획(백만불)	118	33	33	-	-
투자이행(백만불)	66 (55.9%)	32.5 (27.5%)	33.5 (28.4%)	-	-
투자집행계획(백만불)	118	3	19	25	35
투자집행이행(백만불)	77.8 (65.9%)	3.2 (2.7%)	18.6 (15.8%)	35.6 (30.1%)	20.4 (17.3%)
고용계획(명)	524	47	72	38	51
고용이행(명) (누계율/예상)	171 (32.6%예상)	47 (9%)	72 (22.7%)	33 (29%)	19 (32.6%예상)
현금지원예산 (백만원)	10,400	-	3,360	1,240	1,040
현금지원집행액 (백만원)	3,393 (예상)	-	1,924 (57.2%)	1,060 (85.4%)	409 (예상, 39.3%)

- 이처럼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지원금의 부실한 집행실적은 지멘스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지멘스의 경영환경의 변화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16년도 고용부진 사유에 대하여 지멘스는 국내·외 복합화력 에너지산업 시장의 환경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 수주율의 저조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유동적인 예산집행 문제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지멘스에서 고용한 인력들에 대한 직급, 임금, 근로기간 등 고용의 질을 평가한 적이 없고 현금지원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가 불명확하여 차후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지멘스 측은 서울시에 한국인의 고용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카.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별설명서 p.191>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	166,000	16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16,000 ■ 시설비150,000

- 본 사업은 청소년, 어린이·가족단위 관람객 대상의 테마 박물관이 부족한 서울시에 폭넓은 관람기회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로봇과학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시장의 요청사항에 의하여 최초 추진되었으며 문화본부에서 2015년 2월 로봇박물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에 도봉구 창동 1-7부지를 최종 장소로 선정하였음.

<로봇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7번지
- 규 모 : 대지면적(2,985.35m²), 연면적(6,500m²내외),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사업내용 :

- 가족단위(어린이-청소년-성인의 3세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계획 수립
- 미래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미래 활용 영역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 개발
- 서울시립과학관과 연계하여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유계획 수립
- 로봇과학관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시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전시 기획 구상

○ 건립비용 : 38,000,000(천원)

○ 부지구입비용 : 16,500,000(천원)

○ 이후 로봇박물관의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4)에 따라 로봇과학관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는 총 8,150만원으로 문화본부에서 이관된 로봇박물관 예산 5억 6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음.

○ 2017년에 편성된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5)에 따른 연구용역을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위한 것으로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당초 로봇박물관의 건립비용을 38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조정하여 부지구입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495억이 되어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건립비용의 조정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기간의 소용 등으로 로봇과학관 건립 지연을 우려한 도봉구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건립비용의 조정은 로봇과학관의 신속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있는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의 감축은 부실한 공사를 야기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로봇과학관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부지 내에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K-POP 박물관, 아레나 등 다수의 복합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음.
- 다양한 테마 박물관과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전시가 부족한 환경과 세계적인 로보틱스에 관한 체험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타당성이 충분하나 건립비용의 조정과 건립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로봇과학관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 건립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타.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5>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도시형 제조업 (소공인) 지원	1,112,000	652,600	△459,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6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47,000 ■ 연구용역비 34,000

- 본 사업은 도시형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은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다르고 업종 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차이가 있어 그 간 추진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는 차별되는 별도의 지원을 위하여 6억 5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음.
-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버너스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센터당 최대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 출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센터운영기관과 사업비를 각각 15%(7천 5백만원)씩 부담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현재 서울시 관내에 8개, 전국에 총 31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2개를 포함하여 6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센터 설치 과정에 있음.
- 서울에 소재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중 서울시는 7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소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연번	분야	집적지	주관기관	시비(백만)	개소
1	의류봉제	종로구 창신동	한국의류산업협회	67.5	'13
2	의류봉제	중구 신당동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79.2	'15
3	의류봉제	성북구 장위동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49.5	'15
4	수제화	성동구 성수동	(재)서울산업진흥원	48.0	'15
5	귀금속	종로구 종로1-4동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48.0	'15
6	인쇄	중구 쌍림동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61.0	'13
7	기계금속	영등포구 문래동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	'13
8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초구 반포4동	(사)한국차양산업협회	38.1	'16

- 서울시는 2016년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은 관내에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추가로 유치하여 총 12개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업목표 달성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좌우되어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한편, 중소기업청은 매년 센터별로 지원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센터가 부진한 평가를 받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외부적 요인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청과 중복되는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선정과 실적평가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결과가 좌우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공인 집적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 선정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의 센터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
- 한편, 서울시는 조례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17년 예산에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6년 예산편성 당시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는 급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던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1차분 3,30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17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16년 예산편성 당시 주의 소홀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실적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지급대금을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함.
 - 서울시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3천만원을 우리경제 동향 및 경기 예측(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였음(2016년 10월)

IV. 기금검토보고

1. 기금 총괄 검토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1,528	127,397	233,732	△106,334	5,193

- 경제진흥본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성과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음.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51억 9천 3백만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 1,115억 2천 8백만원 대비 95.4%(1,063억 3천 5백만원) 감액되었음.

2.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 및 지원 현황

가. 조성 및 운용 현황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11,528	127,397	233,732	△106,334	5,193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서울시의 전출금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조성되는 기금의 재투자입금 비중이 늘어가고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

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1억 9천 3백만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 1,115억 2천 8백만원 대비 95.4%(1,063억 3천 5백만원)가 감소한 규모가 됨.

나. 지원 현황과 계획

(1) 2016년도 지원 실적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지원실적)	'16.10.31 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1,572	10,000	7,798	26,377	78.0
중소기업육성기금	1,922	2,000	942	1,649	47.1
경영안정자금	1,822	1,200	551	1,563	45.9
시 설 자 금	100	800	391	86	48.9
시중은행협력자금	9,650	8,000	6,856	24,728	85.7

* '16.10월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액 1,321억원, 66% (시설자금 696억원, 87%) 추천됨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원이었으며, 현재까지 26,377개 업체에 7,798억원(계획 대비 77.9%)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계획대비 85.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시설자금은 당초 계획대비 48.8%, 경영안정자금은 45.9%만 지원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했던 자금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 원인으로는 자금경색을 겪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이 더욱 부진하게 되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지원 실적을 분석 후 자금수요의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분야별 지원규모의 조정 등이 요구됨.
-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의 기금출연의 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시에 예상했던 자금지원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2) 2017년도 운용 계획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7(A)	'16(B)	증감(A-B)	항 목	'17(A)	'16(B)	증감(A-B)
합 계	243,826	406,567	△162,741	합 계	243,826	406,567	△162,741
전 입 금	39,600	0	39,600	용자금	200,000	200,000	0
				이차보전금	40,000	45,000	△5,00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24,397	158,576	△34,179	예수금원리금상환	2,398	72,888	△70,490
				G밸리펀드출자금	200	0	200
				녹색펀드	0	400	△400
예치금회수	76,828	244,991	△168,163	기본경비	1,000	1,000	0
이자수입	3,000	3,000	0	시스템 유지보수비	134	133	1
기타수입	0	0	0	예치금	93	87,145	△87,052

-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2,438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27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7년도 수입내역은, 용자금 회수 1,243억 9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 768억 2천 8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396억원임.
 - 출연금 397억원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어 있음,
 - 전년도와 대비하여 용자금 회수수입은 341억 7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1,681억 6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인 재투 차입금 규모의 제한은 바람직한 조치라 볼 수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정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의 타 기금을 융자를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2016년에는 편성되지 못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 396억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소비경기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출연금의 안정적 편성이 요구됨.
- 2017년도 지출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억 9천 8백만원, 융자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⁶⁾ 400억원, 펀드 출자금 2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3천 4백만원, 위탁수수료와 심의회 심의수당 등 기본경비 10억원, 예치금 9천 3백만원임.
-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금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시중은행 자금 대출의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2%, 특별자금의 경우 2~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